



고후의 춘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9~10일 '2013 난대전'

광주 1인당 영화 5편 관람, 당신은?

영진위 '2012 한국영화 산업 결산'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어벤져스', '늑대소년', '다크 나이트 라이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남자 전성시대', '내 아내의 모든 것', '연가시'

2012년 흥행 10위에 포진한 영화들이다. 최대 관객을 동원한 '도둑들'은 1298만명이 관람했고, 10위를 차지한 '연가시'의 관객은 451만명이었다.

가운데 끝까지 기록했다.

광주 지역 영화 관람 횟수가 높은 이유는 인구 대비 스크린 수가 많은 점을 꼽을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외곽 신도심에 쇼핑몰 등을 갖춘 멀티플렉스가 꾸준히 들어서면서 스크린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예전처럼 마을 먹고 영화관을 찾지 않아도, 거주지 부근에서도 쉽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지난해 광주 지역민들의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5.19회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도둑들'.

지난해 1인당 5.19회...2년 연속 서울 이어 2위

인구당 스크린수 1위...수작영화 일찍내려 '아쉬움'

이 중 당신이 관람한 영화는 몇편이나 되는가. 광주 시민들의 지난해 영화관람 횟수는 1인당 5.19회였다. 서울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가 지난달 펴낸 '2012년 한국영화 산업 결산'에 따르면 2012년 극장 관객 수는 1억9482만명으로 1인당 관람 횟수는 3.83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55회(5654만명)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5.19회(763만명)로 2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해에도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과 대구가 각각 4.94회와 4.67회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2011년의 1.35회 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1.72회(328만명)로 16개 시도

조사가 진행됐던 지난해말 기준 전국 극장수는 314개, 스크린수는 2081개였다. 이 중 광주의 극장은 12개, 전체 스크린 수는 88개로 2011년의 76개에 비해 12개가 늘었다.

광주(146만명)와 비슷한 인구 규모(152만명)인 대전의 경우 극장수는 7개, 69개 스크린을 갖고 있으며 인구수 280만명의 인천 지역 스크린수는 110개다.

또 인구수 115만명의 울산은 전체 스크린 수가 26개에 불과하다. 최하위권인 전남 지역 극장수는 7개, 49개 스크린이다.

인구 10만명당 스크린 수를 비교해 보면, 광주가 5.9개 스크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영화도시로 불리는 부산은 5.1개(182개

스크린), 대구는 4.9개(125개)였으며 460개 스크린을 갖고 있는 서울은 4.5개다.

광주 지역 영화 관람 횟수가 높기는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 흥행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의미있는 '웰메이드' 영화들을 관람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실버러닝 플레이북'의 경우 개봉 1주일만에 대부분 멀티플렉스 스크린에서 내려졌으며 호평을 받았던 '플라이트' 등 많은 영화들이 1주일 버티지 못해 서두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난해 전체 극장 매출액은 4443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광주 지역 극장 매출액

은 557억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곳은 CGV 광주 터미널 점이다. 전남 지역 매출은 230억원 수준이었다.

또 메가박스 코엑스16이 지난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등 10위권 내에 CGV, 롯데 등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포진한 가운데 지역 독자 멀티플렉스인 천안 아우리시네마 10이 9위에 오른 게 눈에 띈다.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광주 지역이 관람횟수는 높지만 관객은 영화들이 가장 일찍 내려지는 곳 중 하나"라며 "멀티플렉스들이 자사 제작 영화들을 밀어주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경중 작 '홍화'

한겨울 북풍한설을 곳곳이 견뎌내는 난은 군자와 절개의 상징으로 예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난중에서도 한국 춘란의 고매함과 아름다움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봄을 맞아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운 춘란의 자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난의 본고장 호남에서 열린다.

(사)광주난연협회(이사장 최수안)는 9~10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3 광주난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난화, 광주난우회, 나누리난우회, 다사랑난우회 등 14개 단체 회원들이 출품한 중후호, 복룡, 산반, 소심 등 30여종, 40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에서 앞서 8일에는 출품된 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상 2점, 최우수상 3점 등 121개 부문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관람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난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영희 전시준비위원장은 "춘란의 끈기 짙은 잎은 절개를 중시하는 광주정신과 맞

들려 있다"며 "이번 전시가 광주시민들이 한국의 춘란을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발기인 총회를 가진 광주난연협회는 춘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봄날, 강을 노래하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 오늘 호신대 티브라운

삼진강, 드들강, 동강...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소재로 한 가곡을 만난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욱)는 3월 행사 테마를 '강을 노래함'으로 정하고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부른다. 8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

이날 행사에서는 정공채 시에 강창식씨가 곡을 부른 '삼진강'과 박달목시에 김경양씨가 멜로디를 만든 '드들강에서'를 함께 배운다. 또 회원들의 무대도 이어진다. 장인에 씨가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부르며 서동선

씨와 유옥순씨는 '동강은 흐르는데', '겨울 강'을 선사한다.

시낭송가 박성애씨가 마중기 시인의 '우울의 강'을 낭송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 달에 반응이 좋았던 안성현의 '부용산'과 안씨의 또 다른 곡인 '엄마야 누나야'도 함께 부른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는 매일 둘째주 금요일 행사를 진행한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재활용 장터 '보물섬'

내일 무각사 첫 개장...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열려

재활용장터 '보물섬'(사진)이 9일 오전 10시 무각사에서 올해 첫 개장 한다.

첫 개장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며 떡거리 장터와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올해는 무각사 경내에서 재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설가게 '보물섬'도 운영한다. 개장 기념식은 9일 오전 11시다.

광주MBC는 라디오 프로그램 '즐거움 오후 3시'(FM 93.9MHz, AM 819KHz)에서 매주 월·금요일 보물섬 자원봉사자와 기증자를 통해 물품에 담긴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한다.

보물섬은 지난 2009년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의 제안으로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광주지역 4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시민들이 직접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장터로 수익금의 10%를 자음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어린이 구호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에는 약 700여 만원이 모금됐다.

청학 스님은 "보물섬은 자원의 순환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종교의 경계를 넘어 나눔을 실천하는 장터"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무각사 내에 상설전시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물섬 장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접수하거나 전화(062-385-0108)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인기자 kki@



책 전문 케이블 방송

'은복TV' 다음달 출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책 전문 케이블 방송 '은복TV'가 다음 달 출범한다.

'은복TV'는 유네스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에 공식 개국하고 신간 소개, 베스트셀러 서평, 출판계 동향, 인문학 좌담 등의 프로그램을 24시간 선보인다.

은복TV는 경기 파주출판도시에 방송 시설을 마련하고 이달 초부터 전국 500만 가정에 시험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은복TV의 모태는 2003년 시작한 인터넷 방송으로, 도서매출 대령업체인 '여산통신' 설립자 조철현(53) 씨를 주축으로 출판사와 도서관, 서점 등이 자금을 보태 케이블 방송으로 탈바꿈했다. /연합뉴스

내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선정 착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9일 오후 서울 서머셋칼리스 호텔에서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선정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 5명(국내 1명, 국외 4명)과 재단 이용우 대표이사, TF팀 등이 참석, 비엔날레 총감독 후보를 검토하고 10회제를 맞는 비엔날레의 방향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다.

비엔날레재단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추천을 받은 후보군 90여 명 중 20명을 총감독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을 돌면서 세계적인 기획자들을 만나 후보군을 추천받았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앞으로 예술 소위원회 거쳐 오는 4월 말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p> <p>(주)대원여행사</p> <p>062)526-7000</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p> <p>www.daewontour.com</p> <p>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p>	<p>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p> <p>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p> <p>여행비 68,000원</p> <p>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p> <p>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p> <p>불포함 식사비</p> <p>특전 영주시에서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p>	<p>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p> <p>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p> <p>여행비 37,000원</p> <p>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p> <p>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p> <p>불포함 식사비</p>
--	--	---

지하 1,2층 할인매장 1,2,3층 이태리 가구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홍스페이스 이태리&모던가구 직수입 도소매 ☎1899-0240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